

코스 : 서남산

매월 3일요일 09:30 ~ 16:30

출발 : 서남산 주차장

가는곳 : 선방골, 삼릉골, 용장골

서남산 코스(삼릉에서 용장까지)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에서 시작하여 산기슭을 따라 삼릉을 참배하고, 냉골(삼릉계곡)을 따라 금오산 정상을 거쳐 용장계곡으로 하산하는 과정이다. 산을 오르면서 문화유적 답사도 겸할 수 있는 코스다. 등산복 차림에 도시락과 음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편의상 서남산 주차장에 주차하고 삼릉에서부터 출발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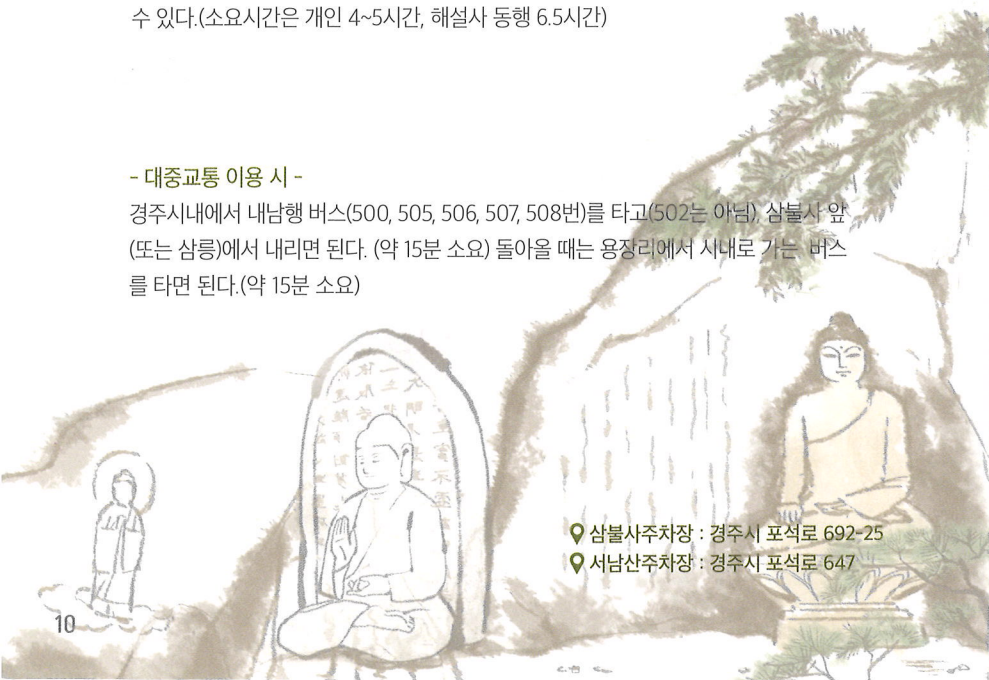
이 코스는 신라시대의 석불을 시대적으로 모두 만날 수 있는 신라 석불의 보고이다. 먼저 삼국시대의 대표적 걸작인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통일신라의 문화적 성숙기에 조성된 풍만하면서도 능름한 기상이 보이는 냉곡 석조여래좌상, 하늘에서 하강하는 모습의 마애관음보살상, 힘 있는 붓으로 한 번에 그린 듯한 선각육존불, 신라 말의 선각여래좌상, 8세기 중엽 문화적 성숙기의 기세를 반영한 듯 힘차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름다운 광배를 가졌으며, 최근에 얼굴이 복원된 석조여래좌상, 산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살며시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한 선각마애여래상,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크며 바위 속에서 나오는 듯한 순간을 새긴 마애석가여래좌상,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이면서도 거대한 바위산을 하층기단으로 삼고 우뚝 선 용장사지 삼층석탑, 남산에서 가장 씩씩하고 아름다운 마애여래좌상, 대현스님께서 기도하면서 돌면 불상 또한 고개를 돌렸다는 용장사지 삼륜대좌불, 김시습이 머물면서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한 용장사지, 9세기에 조성된 방형대좌에 앉아 계신 약사여래좌상 등 실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의 불상을 두루 만날 수 있다.(소요시간은 개인 4~5시간, 해설사 동행 6.5시간)

- 대중교통 이용 시 -

경주시내에서 내남행 버스(500, 505, 506, 507, 508번)를 타고(502는 아님), 삼불사 앞(또는 삼릉)에서 내리면 된다. (약 15분 소요) 돌아올 때는 용장리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약 15분 소요)

📍 삼불사주차장 : 경주시 포석로 692-25

📍 서남산주차장 : 경주시 포석로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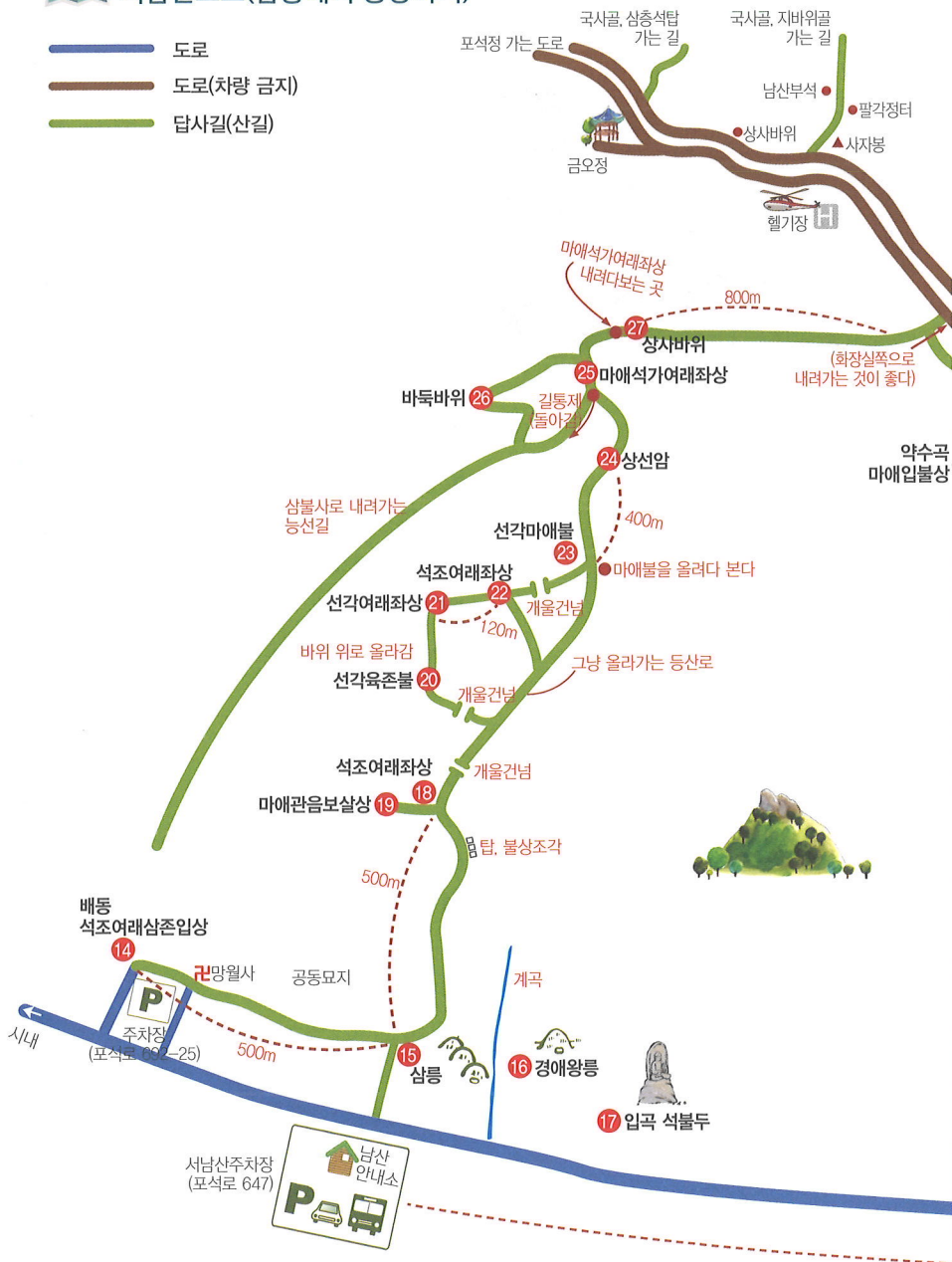
- 10 ○ 서남산 코스
- 12 ○ 쉽게 찾아가는 서남산 코스
- 48 ⑭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 49 ⑮ 삼릉
- 52 ⑯ 냉곡 석조여래좌상
- 53 ⑰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 54 ⑱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 55 ⑲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 56 ⑳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 57 ㉑ 선각마애불
- 58 ㉒ 상선암 마애선각보살상
- 58 ㉓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 59 ㉔ 바둑바위
- 59 ㉕ 상사바위와 소석불
- 60 ㉖ 금오산 정상
- 60 ㉗ 대연화대(삼화령)
- 62 ㉘ 탑 기단석
- 62 ㉙ 용장사곡 삼층석탑
- 63 ㉚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 64 ㉛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 65 ㉜ 탑재와 석등대석
- 65 ㉝ 용장사지
- 66 ㉞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좌상
- 67 ㉟ 약수곡 마애입불상
- 67 ㊱ 약수곡 석조여래좌상
- 68 ㊲ 비파바위
- 68 ㊳ 비파곡 삼층석탑



쉽게 찾아가는

서남산코스(삼릉에서 용장까지)

- 도로
- 도로(차량 금지)
- 답사길(산길)





◎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¹⁴⁾

보물 63호



삼불사 옆에 있는 이 석불은 주변에 흩어져 묻혀 있던 것을 1923년 지금의 자리에 모아 세운 것이다. 본존불은 높이 2.75m이며 좌우의 보살상은 높이 2.28m, 2.2m이다. 삼존이 모두 명량하고 천진스러워 아기들처럼 보인다. 풍만한 얼굴에 크게 반원을 그린 눈썹이 깊이 패어졌고, 그 밑에 눈두덩이 부풀어 올라 가느스름한 눈자위에 그늘을 지우면서 두 눈이 천진스럽게 웃음 짓는다. 짧은 코 아래 두툼한 입술, 그 양가에 언덕을 이룬 두 뺨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난다. 두 눈썹 사이에 백호가 뚜렷하고, 나발은 구슬뿔처럼 표현되어 있다. 네모난 발은 평평하게 대좌를 밟아 편안하고, 두꺼운 가사에는 굵은 옷주름이 등성등성 U자형의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시무외인(施無畏印: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약속)과 시여원인(施與願印: 원하는 바를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삼국시대 불상은 대개 이러한 수인을 하고 있는데 통인이라 한다. 좌협시보살상의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가느스름한 작은 눈이며 조용한 코, 상현달 모양으로 내민 입술은 모두 조그맣게 표현된 데 비해 두 뺨은 널따랗게 언덕을 이루었다. 보름달 같이 둥그런 얼굴에 부드럽고도 강한 미소가 넘친다. 두광은 장식이 없고 머리에는 관대를 두르고 삼면두식(三面頭飾)으로 장식되었다. 목에는 세 개의 영락(瓔珞)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가슴에는 승기지가 비스듬하게 가려져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이중의 연화대 위에 서서 오른손은 영락을 잡고 왼손은 경책을 쥐고 있다. 몸은 삼굴자세를 하고 있으며, 어깨는 약간 움츠리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가느스름하여 두 눈에 웃음이 서려있고, 코는 삼각형으로 짧고 입술은 조금 큰 편인데 양쪽 가장자리가 깊게 파여져 두 뺨에 언덕을 이루면서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둥근 두광의 테두리에는 두 줄의 선을 돌리고 5구의 화불을 새겨놓은 것이 특이하다. 세 줄로 된 영락은 아래쪽에 큰 연꽃이 한 송이 달려 있고, 허리를 감은 군의(裙衣) 자락을 동여맨 끈이 화려하게 드리워져 있다. 본존불과 좌협시 보살은 7세기 중엽, 우협시 보살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고신라불상의 대표작이다.

경주시 포석로 692-25

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이 세 왕릉은 아래서부터 8대 아달라왕(154~184), 53대 신덕왕(912~917), 54대 경명왕(917~924)의 능으로 주변이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능의 구조는 신덕왕릉이 1935년 도굴된 후 조사에 의하면, 깎은 돌로 축조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확인되어 모두 횡혈식석실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실(玄室:주검이 안치되어 있는 방)은 정방형을 하고 있으며, 남북 중앙에 널길을 설치하였고, 높이 35cm, 길이 2m의 자연석 시상대가 놓여 있어 합장릉으로 보인다. 무덤 내부의 북·동·서 벽면에 높이 1.4m 높이로 12폭을 상하로 나누어 24면에 일정한 순서 없이 주·황·백·군청·감청의 5색을 배색하였다. 이는 신라 고분에서 채색이 확인된 유일한 무덤이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왕릉들은 1730년경 박씨 종중에서 열조(烈祖) 헌창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의 장지 기록은 없으며, 신덕왕은 '죽성에 장사 지냈다'(『삼국유사』에는 화장하여 잠현 남쪽에 묻었다)고 하였으며, 경명왕은 '항복사 북쪽에서 장사지냈다'(『삼국유사』에는 항복사 북쪽에서 화장하여 성등잉산 서쪽에 뿌렸다)고 하였다.



📍 서남산주차장(경주시 포석로 647)에서 걸어서 4분



○ 냉곡 석조여래좌상[®]



삼릉에서 등산로를 따라 500m쯤 올라가면 길 옆 바위 위에 머리 없는 석불좌상이 있다. 높이 1.6m, 무릎 너비 1.56m나 되는 큰 좌불상이다. 계곡에 묻혀 있다가 1964년 발견되어 지금의 장소에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멸이 거의 없고 옷 주름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머리가 없어지고 두 무릎이 파괴되어 수인은 알 수 없다. 편안히 앉은 자세며 힘 있게 주름 잡힌 삼도, 당당한 가슴, 넓은 어깨, 탄력 있는 조각, 위풍당당한 자세로 보아 8세기 중엽 신라 전성기의 불상이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가사 끈을 매듭지어 무릎 아래로 드리워진 두 줄의 영총수실은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매듭 공예가 먼 신라 때부터 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부처님의 승가지(속옷) 역시 예쁜 매듭으로 묶여져 있다. 이 불상의 대좌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거칠게 치석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 불상은 본래 지금처럼 어느 곳 큰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자연과 어우러져 있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¹⁹⁾

유형문화재 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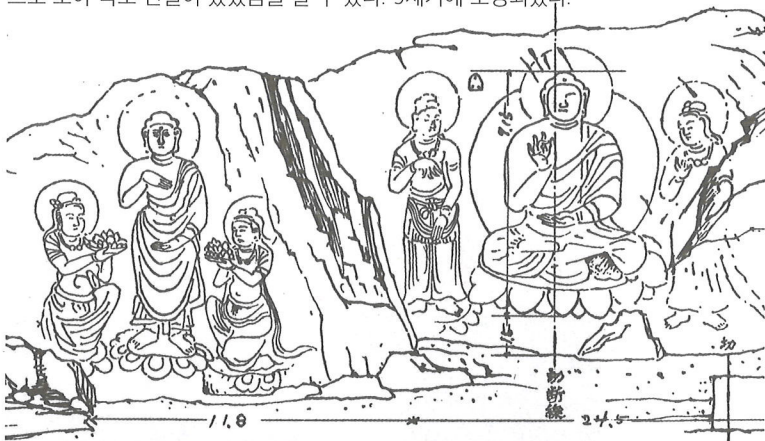
머리 없는 석조여래좌상에서 북쪽(왼쪽) 산등성이를 쳐다보면 뾰족한 바위기둥들이 솟아 있는데 그 중 한 바위에 빙그레 미소를 머금고 하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관세음보살입상이 새겨져 있다. 살결이 풍만한 얼굴은 미소를 머금었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다.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을 배치하여 관세음보살임을 표시하였는데 목걸이와 가사를 동여맨 끈은 나비 날개처럼 매듭을 짓고 그 자락이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 발가락 끝에까지 피가 도는 듯 섬세하게 조각된 이 불상은 따스한 촉감을 일으키는 복련(覆蓮) 위에 서 계신다. 이 관세음보살상이 서 있는 자리에는 전각을 지을 만한 곳도 없고 기와조각도 떨어진 것이 없으니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을 비바람이 치는 노천에 세운 것은 무슨 뜻일까? 바위 벼랑에 불상을 새기고 산기슭에서 올라다보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시는 그 감격을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려 함이 아니었을까? 광배를 따로 만들지 않고 뒤쪽의 비스듬한 바위를 광배 삼아 보살상을 조각했기에 방금 하늘에서 하강한 듯한 모습이다. 이 불상이 가장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순간은 석양 해질 무렵이다. 단풍이 드는 가을철 석양 때가 더욱 좋다. 보살상의 높이는 154cm, 어깨너비는 54cm이며, 9세기에 조성되었다.



○ 삼릉계곡 선각육존불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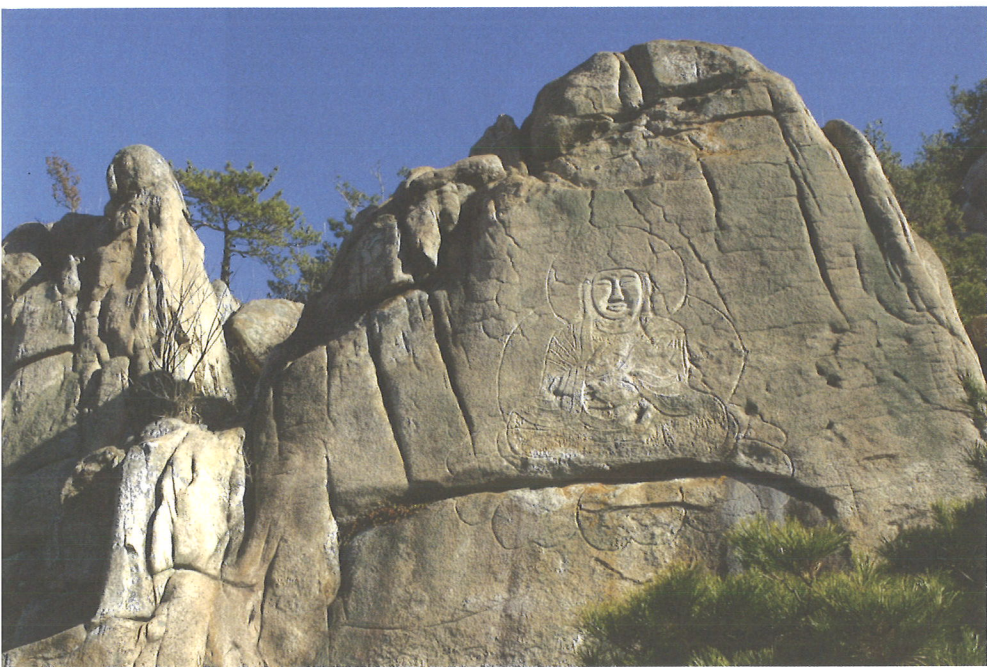
유형문화재 21호

계곡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골짜기 왼쪽에 자리 잡은 넓은 바위에 선으로 새겨진 불상이 있다. 동서로 펼쳐진 넓은 바위 면에 선으로 새겨져, 마치 신라시대의 불교 그림을 보는 듯하다. 동쪽(안쪽) 바위 면에는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 삼존불을 새기고, 서쪽(바깥쪽) 바위 면에는 아미타삼존불을 새겨, 현생과 내생을 나타내었다. 아미타불의 수인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수인이며, 좌우 보살상은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 가득히 연꽃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우협시 보살상은 연화좌대를 생략하여 바위 속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친 바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각으로 조성하여 더욱 신비감이 느껴지는 조각이다. 바위 윗면에 목재를 결구(結構)한 흔적과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길을 파 놓았고, 바위 앞면에 많은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 전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²¹⁾ ○

유형문화재 159호



선각육존불에서 바위 위 등성으로 180m 쯤 올라가면 높이와 너비가 각 10m 쯤 되는 넓은 바위절벽이 서쪽을 향해 솟아 있다. 그 암벽 중앙에 지름 2.5m 쯤 되는 연꽃 대좌 위에 전법륜인을 하고 앉아 계신 여래상이 있다. 신체는 모두 선각으로 나타내고 얼굴만 깎아 내어 돌을새김으로 표현하였다. 두 눈썹과 눈은 아주 가깝고 코는 길고 입술은 두텁고 커서 균형 잡힌 얼굴이라 할 수 없으나 소박한 위엄이 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을 모두 표현하였다. 연화대와 광배 등은 굽은 선으로 그었고, 옷주름 같은 것은 가는 선으로 변화를 주었다. 상 전체에서 재주를 부리지 않은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데, 머리 위의 육계, 얼굴의 투박함, 귀부분 등 세련된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 미완성으로 보인다. 남산의 마애불 중 가장 늦은 10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여래좌상 옆의 바위는 부부가 서로 안고 있는 모습 같아 부부바위라 불리고 있다.

◎ 삼릉계 석조여래좌상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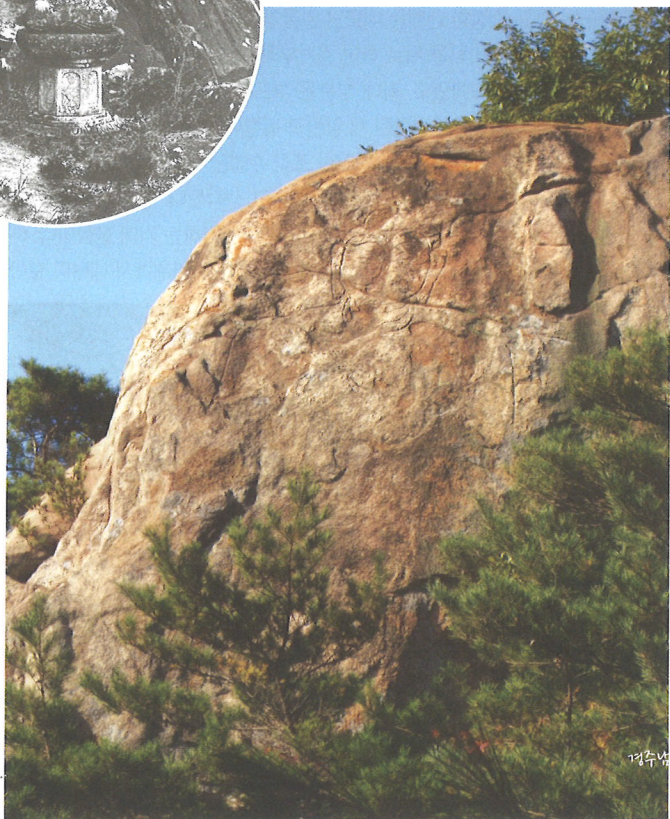
보물 666호



선각여래좌상에서 오른쪽으로 난 능선 길을 따라 120m 정도 가면 솔숲에 많은 바위 무리가 있고, 그 가운데 순백 화강암으로 조성된 여래상이 화려한 연화대석 위에 앉아 계신다. 연화대좌는 투박하게 팔각으로 깎은 하대석과 면마다 안상(眼象)을 새긴 중대석을 놓고 그 위에 화려한 보상화 연꽃을 올려놓았다. 안상이란 귀인들이 앉는 평상을 말하는 것이니 중대석 위는 절대로 존엄한 세계라는 뜻이다. 이렇게 존귀한 평상 위에 보상화로 장식된 화려한 둥근 연꽃송이를 얹어 놓았으니 이 연꽃은 수미산 위에 핀 하늘의 꽃송이인 것이다.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대석이다. 보통 불상의 하대석에는 복련을 새기는데, 이 불상은 하대석을 팔각으로 거칠게 깎고 말았다. 불상이 바위 속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이 불상 주위에는 건물을 지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 조화되지 않을 경우 불상이 눈비를 맞더라도 전각을 짓지 않았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광배의 안쪽에는 부드러운 넝쿨 잎을 새기고 바깥쪽은 힘 있게 타오르는 불꽃무늬를 새겼다. 광배는 윗부분이 조금 깨진 채로 불상 후면에 세워졌으나 1963년 겨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려, 2008년 12월 상호와 광배를 복원하였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상이다. 불상 앞 쪽 아래 평평한 곳에 있는 작은 단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탑의 원위치이다. 바위를 탑의 기단으로 삼아 세운 삼층석탑이다.(옆 사진)



석조여래좌상에서 오른쪽 개울을 건너면, 상선암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타난다. 개울 건너에서 바라보면 석조여래좌상의 뒤쪽 30여 m의 바위 절벽 면에 얼굴 부분만 선각으로 새겨진 마애불상이 있다. 부드러운 선으로 새겨져 원만한 상이다. 바위 면에 비해 불상이 너무 커서 본래부터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듯하다. 바위 속에 숨어 있던 부처님이 이 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 반겨주는 듯한 모습은 아닐까? 9세기에 조성된 불상이다. 이 바위의 오른쪽 바위 절벽 중턱에는 191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었다. 그 곳에는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작은 건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상선암 마애선각보살상²⁴

상선암은 옛 절터에 90여 년 전 세워진 사찰이다. 절 뒤쪽 부서진 바위에 하반신만 선각으로 남아 있는 조각이 있는데, 화려한 옷주름과 구슬리본 등이 새겨져 있어 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완전할 경우 6m 정도 되는 큰 보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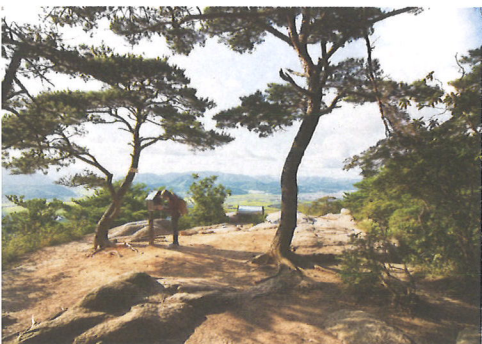


○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²⁵

유형문화재 158호

상선암에서 120m쯤 올라가면 거대한 자연 암반의 벽면에 6m 높이로 양각된 불상이 있다. 이 여래좌상은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이다. 얼굴의 앞면과 귀 부분까지는 높은 돌을새김으로 원만하게 새겨진 반면, 머리 뒷부분은 투박하게 바위를 쪼아 내었다. 짧은 목에 삼도는 없고, 건장한 신체는 네모난 얼굴과 잘 어울린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설법인을 짓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불상의 몸부분은 거칠고 역세게 선각하였고, 좌대 부분은 부드러워지다가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듯한 모습이다. 대좌는 중대석이 생략된 채 양련과 복련이 서로 맞붙어 있으며, 양련의 연잎 안에 다시 화문(花紋)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조각 수법은 불교가 바위신앙과 습합하여 바위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시는 순간을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입체감이 없는 신체표현, 힘이 빠진 옷주름 선 등으로 보아 9세기 불상양식을 반영하는 거대 불상이다. (지금은 낙석 위험으로 길을 돌아가도록 하여 바둑바위를 지나서 상사바위에서 내려다 보아야 한다.)





바둑바위²⁶ ○

냉골 암봉 바위산 꼭대기에는 금송정터라고 전해 오는 건물터가 있다. 그 옆 바위 벽판에는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며 놀았다고 하며, 『동경잡기』(1669년)에는 신라때 옥보고가 거문고를 켜던 곳이라고 한다. 전망이 좋아 서라벌 벌판과 북남산이 모두 보인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상사바위를 돌아보고 이곳에서 왔던 길을 돌아 내려가거나, 삼불사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



○ 상사바위와 소석불²⁷

상선암 뒤로 높이 솟아있는 남산신 상심이 살고 있는 바위로서 동쪽면은 남근석과 기도처, 남쪽면은 산아당으로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기를 기도하는데 영험이 있다. 1856년에 새긴 산신당(産神堂)이라는 명문이 남아있다. 남산신 상심은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기도 하였다. 상사바위의 동쪽 면은 기도용 감실이 있고 그 앞에 머리와 연화대를 잃어버린 작은 석불이 1구 있는데, 남산에서 발견된 가장 작은 석불이다. 통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고신라 불상일 가능성도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상사바위 앞 공간도 옛 절터이다. 여기서 금오산 정상까지는 20분 정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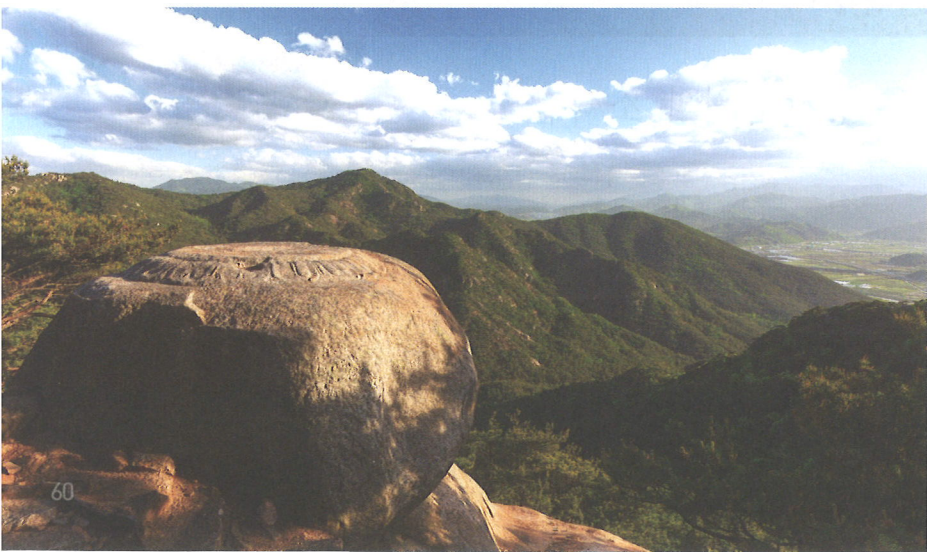
○ 금오산 정상²⁸

해발 468m로서 이곳은 냉골, 포석계, 지바 위골, 비파골, 약수골 등의 분수령이 된다. 용장사지 가는 길은 화장실쪽 도로로 내려 가는 것이 좋다.



○ 대연화대(삼화령)²⁹

용장골 정상에 있는 높은 암반 위에 거대한 연화대좌가 있다. 그 위에는 웅려무비한 솜씨로 큰 연꽃이 새겨져 있다. 본래는 그 위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봉우리는 용장사 쪽으로 뻗어내린 장엄한 산맥과 남으로 뻗어내려 고위산에 연결되는 산맥, 금오산정에서 굽이쳐 오는 세 갈래의 큰 산맥을 모아 꽃송이처럼 솟아오른 봉우리가기 때문에 삼화령이라고 한다.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앞으로는 고위산이, 동쪽으로는 토함산 불국사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단석산이, 남서쪽으로는 가지산, 영축산 준령이 바라보인다. 대좌 앞으로도 한 단의 계단이 더 마련되어 있지만 몇 걸음 아래가 낭떠러지라 겨우 참배가 허락될 정도의 여유만 있는 곳이다. 아마도 이곳을 천혜의 성스러운 부처님 땅으로 여겨 불상과 연화대를 새겨 그대로 예참 정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생의스님이 찾아내고, 35대 경덕왕 때 총담스님이 차공양을 올리고 안민가를 노래하던 삼화령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용장계곡으로 내려가다가 건너다보는 모습도 절경이다.



삼화령에 대하여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생의사 석미륵>조에

선덕왕 때에 생명의 도주사에 살았다. 꿈에 한 스님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묶어 표를 하게 하고 남쪽 골짜기에 와서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이 꺼내어 고개 위에 옮겨 주시오” 하였다. 꿈에서 깨자 그는 벗과 함께 표해 놓은 곳을 찾아 땅을 파니 돌미륵이 나왔으므로 삼화령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왕 13년(644)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뒤에 생의사라 했다. 충담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서 공양한 분이 바로 이 부처다.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765)에 오악삼산의 신들이 때때로 나타나 래컬 뜰에서 왕을 모셨다. 3월 3일 왕이 귀정문 누에 올라 좌우에 말하기를 “누가 길에서 위험과 풍모를 갖춘 스님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때 마침 위위가 있고 깨끗한 래컬 한 분이 길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스님을 왕에게 데려오니 왕이 “내가 말하는 위위 있는 스님이 아니냐” 하고 돌려보냈다. 다시 한 스님이 있었는데 허술한 옷을 입고 삼태기를 메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이 보고 기뻐하여 누각 위로 맞이하였다. 통 속을 보니 차를 다리는 도구가 들어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충담입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올리는데 지금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차 한 잔 나누어 주겠는가.” 스님이 이내 차를 달여 드리니 차 맛이 이상하고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불받쳐 오른다. 왕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들으니 스님의 기파를 찬미한 사외가가 그 뜻이 매우 깊고 높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지어 주시오.” 하니, 이내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은 아름답게 여겨 그를 왕사로 봉하니 스님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안민가는 이려하다.

임금은 아비요 산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 여기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이 되어 감을 알리이다.

아 아, 임금당제, 산하당제, 백성당제 한다면,

나라 안은 가이 태평하리이다.

<빈녀양모>조에는

효종왕이 남산 포석정 혹은 삼화수리에서 놀고자 하니 문객들이 모두 급히 달려왔으나 오직 두 사람만이 뒤늦게 오므로 효종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

<빈녀양모>조에서 보듯이, 삼화령 또는 삼화수리는 화랑들의 심신단련장으로도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효종왕은 56대 경순왕의 아버지다.

📍 통일전주차장(경주시 칠불암길 6)에서 등산 1시간 20분

○ 탑 기단석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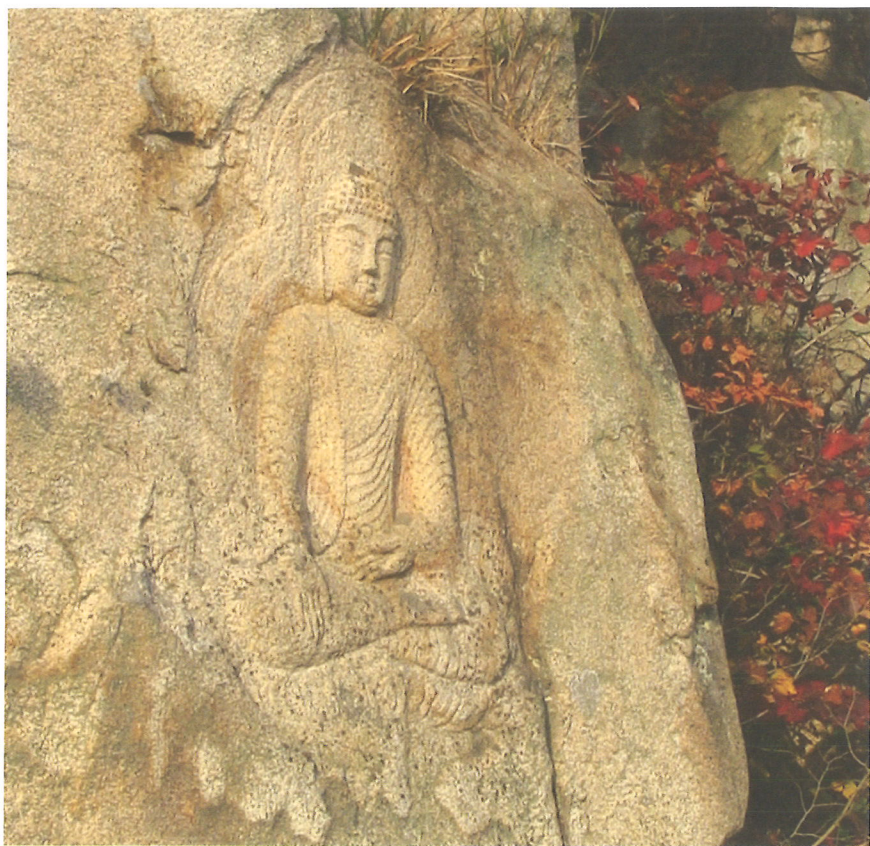
용장사지 최상부에 있는 석재 기단인데, 탑의 기단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제단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용장사곡 삼층석탑³¹⁾ 보물 186호

용장사지 동쪽 능선 위에 자리하여 이 계곡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3층 옥개석까지 남아 있으며, 높이 4.5m이다. 멀리서 보면 350m 높이의 바위 산 전체를 하층기단으로 삼은 듯하여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수미산 꼭대기에 탑을 세운 듯하다. 바위에 홈을 파고 6cm 정도 되는 괴임을 2단으로 마련하였다. 기단의 한 면은 1장의 큰 석재로, 나머지 3면은 2매의 석재로 결구시켰다. 탱주는 한 개이다. 위에는 탑신과 괴임 2단이 마련되었고, 기단갑석은 2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다. 탑신과 옥개석은 각각 1매의 석재로 되어 있고, 2층 탑신은 1층에 비해 체감 효과를 크게 주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꾀했다. 옥개받침은 모두 4단으로 되어 있고 옥개석의 윗면에는 탑신과 괴임이 2단씩 마련되어 있다.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고 삼층 옥개석 가운데에 찰주를 세웠던 구멍이 남아 있다. 1924년에 쓰러져 있던 탑을 복원할 때 2층 탑신 상부에서 네모난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이 탑은 거대한 바위산을 기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꼭 올려다보아야 한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³²⁾

보물 9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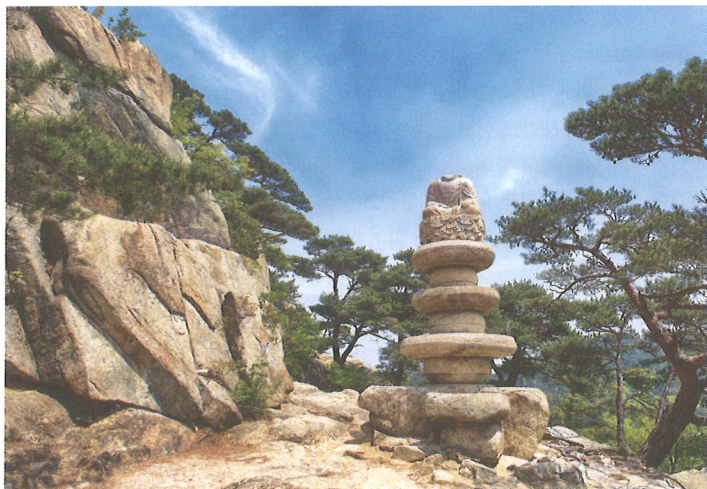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뒤쪽에 높이 5.5m, 폭 3.6m 가량 되는 바위면이 남향을 하고 있다. 그 바위면에 고운 연꽃 위에 결가부좌하고 항마촉지인을 한 여래상이 있다. 이 마애불은 얇은 돌을 새김으로 되어 있는데 대좌의 연꽃을 보면 가운데 꽃잎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양 가장자리로 가면서 차츰차츰 작게 하여 끝에서는 구름처럼 사라지도록 하였다. 불상은 풍만하고 건장한 위엄을 느끼게 하고 결가부좌로 앉은 두 무릎과 넓은 두 어깨는 당당하다. 상호는 머리를 반분한 자리에 눈썹이 길게 그어졌고 양 눈썹에 이어 아래로 뻗어 내린 예리한 콧등은 얼굴 길이의 1/3쯤에서 고운 코를 형성하였다. 굳게 다문 입술은 양가에 힘을 주어 긴장된 표정인데 풍성한 두 뺨과 군살 어린 턱의 부드러움은 자비롭기 그지없다. 육계는 얼굴과 조화롭게 덩실 솟았고 머리카락은 나발로 표현되어 있다. 옷자락은 속이 다 비칠 것 같은 얇은 느낌으로 잘게 주름을 잡아 놓고 있다. 두광은 무늬 없이 두 겹의 원으로 표현되었고 신광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광 좌측에 명문이 2줄로 10여 자 있으나 판독이 어렵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³³

보물 187호

마애여래좌상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삼륜의 대좌에 머리가 없는 좌불이 있다. 지대석은 자연석의 뒷면만 고르게 가공하여 쓰고 있는데 지대석이자 곧 기단으로 보인다. 높이 1m 남짓한 기단 위에 둥글게 다듬은 북 모양의 중대석을 얹고, 그 위에 쟁반 모양의 둥근 반석을 놓았다. 다시 그 위에 중대석과 반석을 놓았고, 세 번째의 중대석을 결구시키고 양련의 둥근 반석대좌를 마련한 위에 화려한 연꽃방석을 얹고 결가부좌로 앉은 불상을 모셔 놓았다. 불상의 높이는 연꽃방석 밑에서 목까지가 141cm이고 대좌의 총 높이는 3m에 달한다. 불상은 결가부좌로 앉고, 오른손은 선정인, 왼손은 무릎 위에 얹어 땅을 가리키는 인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양어깨를 덮고 흘러내린 가사 깃 사이엔 승기지가 비스듬히 가슴을 가리고 매듭이 맺히게 조각되어 있다. 또 왼쪽 어깨에 드리워진 가사끈의 수실 때문에 이 불상을 승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흘러내린 가사의 자락들이 물결처럼 출렁이며 무릎을 덮고 흘러내려 상현좌를 이루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삼국유사』의 〈현유가해화엄(賢瑜伽海華嚴)〉조에 의하면, **옛날 용장사에 육가종의 대력인신 대현스님이 재셨는데, 그 절에는 미륵장륙성상이 있어, 대현스님이 그 미륵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돌면, 미륵부처님 또한 대현스님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처님이 바로 대현스님께서 기도하면서 돌던 그 미륵부처님이 아닐까 한다. 이 불상이 미륵불이라면, 자연석 하층기단은 수미산이요, 기단석 위 첫 둥근 반석은 제석천왕의 도리천, 두 번째 반석은 야마천이 되며, 마지막의 연화 원반대좌는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이 아닐까.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탐재와 석등대석³⁴ ○

현재는 기단갑석과 2층 옥개석, 자연 암반의 석등대석만 남아 있다. 이 탐재로 보아 이곳에도 석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석등대석은 밤에 이곳을 찾는 사람을 위한 등대로서의 석등이다. 이곳에서 올려다보는 삼층석탑은 하늘의 부처님 나라를 우러러보는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절경이다.

용장사지³⁵ ○

용장골 어귀에 있는 마을 이름이 용장리이고 계곡 이름도 용장골이니 모두가 용장사에서 비롯한 이름들이다. 용장사는 이 계곡의 주인격일 뿐 아니라 남산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대가람이었다. 용장골의 남쪽 면은 수리산을 정상으로 하여 흘러내린 여러 갈래의 계곡들로 되었는데 열반골의 기암과 괴석들이며 은적암 부근의 삼각봉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금오산에서 뻗어 내린 여러 산맥들로 구성된 북쪽 면에는 이렇게 할 잘생긴 봉우리들이 별로 없다. 하지만 용장사가 자리 잡은 이 봉우리는 거대한 바위들로 첩첩이 솟아 있다. 용장사는 어느 때 폐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 설잠스님(매월당 김시습)이 이곳에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썼다고 하니 조선 중기까지는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절터 축대들과 기와 조각들만이 폐허를 뒹굴고 있다.





○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좌상³⁹

설잠교를 지나 하산하다가 절골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150m 정도 올라가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무너진 축대가 2곳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큰 축대가 나타난다. 법당터 한가운데 남향으로 앉으신 이 불상은 산에서 흘러온 모래와 자갈돌에 묻혀 있었던 것을 1940년에 발굴 조사한 것인데, 머리와 광배는 찾지 못하고 대좌와 몸체만 발견되었다. 불상은 결가부좌로 앉아 왼손에 약 그릇을 들고 오른손은 축지인상을 나타내어 약사여래임을 나타내고 있다. 조각의 선은 부드럽고도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신체에 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9세기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삼단으로 된 이 불상의 대좌는 불상 아래에 묻혀 있으며, 남산에서 셋 밖에 없는 희귀한 네모난 대좌이다. 주변에 석탑 옥개석 1점과 하층 기단석이 남아있다.